2025 상촌애서(愛書) '나도 작가' 프로젝트

교육과정 연계 학생 책 쓰기 '서평 작품집'

독서 플레이리스트

사서교사 **오현미** 엮음



상촌중학교

책을 펼친 여러분은 이제 '읽는 사람'을 넘어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도, 내 글이 유치해 보이거나 남과 비교되어 작아 보였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흔들림 속에서 써 내려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한층 더 성장시켰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책 읽기와 쓰기의 용기를 건네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_국어과 박선희 선생님

서평을 쓰면서 막막했거나 솔직한 생각을 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말로 글을 완성하려고 한 시간이 모여 소중한 이 한 권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내딛은 발걸음입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표현이 미숙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그때의 생각을 돌아보며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아름다운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글쓰기가 자신에게 작은 자신감을 주는 뜻깊은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_국어과 양수현 선생님



응원의 글

얘들아, 이 책을 만들기 위한 너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정말 대견해. 처음 서평을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쓴 글이 책에 실린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을지도 몰라. 어떤 친구는 귀찮았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나는 글 못 쓰는데…' 하며 걱정도 했을 거야. 그래도 결국 끝까지 써 내려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게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워.

이 책 속 글들은 그저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쓴 문장이 아니라, 너희가 책을 읽으며 느낀 솔직한 마음, 너희만의 시선이 담긴 기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툴러도, 문장이 덜 다듬어져 있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거란다. 글을 쓴다는 건 '나'를 발견하는 일이고, 너희는 이미 그 첫걸음을 꽤 멋지게 내디딘 거야.

이 책을 보며 "아, 그때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앞으로도 책을 읽고, 느끼고, 표현하는 너희만의 긴 이야기를 이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언제나 응원할게.

_국어과 원홍연 선생님



Contents



시간을 파는 상점

김규리 시간을 말하는 소설 8
강승연 가장 소중한 것의 재발견 10
정재영 흘러가는 시간 속, 관계로 피어나는 가치 12
구예린 우리의 시간 14
김소연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6
정하율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 18



우아한 거짓말

곽지헌 우아한 거짓말 20
김의중 소설보다 비참한 현실 22
김소민 무심함의 대가,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신호들 24
신송화 잘 지내고 계신가요? 26



플라스틱 빔보

하경현 성형수술이라는 탈을 쓴 중독 28
김선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 30
현채원 플라스틱 빔보,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갈림길에서 32
김지현 외모지상주의, 이대로 괜찮을까? 34
김시우 성형, 선택의 문턱에서 36
최혜민 외모가 과연 전부일까? 38



훌훌

우민혁 삶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는 법 40
차선민 서로의 손을 잡고, 훌훌 42
최정원 함께한다는 것 44
홍하율 아픔의 무게를 훌훌 털어 버리기 46



유진과 유진

문현서 그날 이후, 그날 덕분에 48
송한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랬어. 50
이은서 상처를 기억하는 용기 52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양예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54

김시온 가족이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 56



주머니 속의 고래 **김주영** 청소년의 작가 이금이의 진로 교과서 58



위저드 베이커리 **유환서** 청소년의 도피 60



열여덟 너의 존재감 **윤예나** 솔직한 표현 62



나도 낙타가 있다 **이준서** 낙타와 오아시스의 의미 64



다이어트 학교 **김예림** 숫자가 아닌 마음 66



순례 주택 **이가영** 어른이라는 말 앞에서 멈칫 68



구의 증명 **김지효** 사랑과 믿음의 한계 70



완득이 **임수민** 편견을 걷고, 희망을 걸다. 72



시간을 말하는 소설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3-1 김규리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은 제1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시간을 어떻게 판다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호기심과 기대가 생겼다. 하늘색 배경의 책 표지가 눈에 띄었다. 많은 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요소 중 하나였다.

책 속 작가의 창의적 표현

'잘린 도마뱀 꼬리' 목차에서 "도마뱀은 잡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잖아요. 어느 순간 바위틈으로 몸을 숨겨 손바닥 위에는 꼬리만 남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사건은 도마뱀 몸뚱이가 되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도마뱀 꼬리 같은 기억과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라는 대사가 있다. 과거의 경험과 선택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도마뱀에 비유하여 참신하게 시간을 표현했다. '바람의 언덕' 목차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언덕을 등장인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한 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말로 하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을 격려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경험할 일

'어머니를 냉동실에 넣어 주세요' 목차에서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만남은 없다. 무엇이든 바뀌어 있다."라는 문장을 보고 공감했다. 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가 기억하던 친구의 성격과 취향과는 달라져 있던 경험을 한 적 있기 때문이다. 담담하게 말하는 듯한 어조가 문장의 의미를 더 부각해 준다.

시간의 또 다른 의미

이 책을 읽기 전에 시간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시간의 또 다른 의미와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책에서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적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 나온다.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으로만 대했는데 이제는 시간의

새로운 의미를 알고,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구글 포토는 휴대전화 속에 넘쳐나는 사진과 동영상들을 관리해주는 앱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진을 관리해주는 기능을 넘어 전에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현재의 날짜에 맞춰 보여주는 기능으로 많은 사람을 그날의 추억 속으로 빠지게 한다. 이런 면이 책 속 주인공인 온조의 시간을 파는 상점과 닮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처음에 상업적인 면이 강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단순한 알바를 넘어 소중한 무언가가 된 것처럼 단순히 사진을 관리해주는 앱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모아 놓은 의미 있는 앱이 된 구글 포토가 책에서 나오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담은 것 같다.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학생들에게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쓴 것 같다. 나 역시 책을 읽고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내용이 긴장감 있고 재미있으며 시간에 관한 생각을 흥미롭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읽기에 적당한 수준의 단어들과 작가의 깔끔한 문장들 덕분에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여가에 재밌게 읽을만한 책으로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삶 전체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우린 지금 몇 시쯤 됐을까? 아마도 새벽 다섯 시? (p.204)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추억의 책갈피이다. 왜냐하면 내가 읽었던 책들을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가장 소중한 것의 재발견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3-2 강승연

시간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가? 제목을 읽고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시간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 때문에 책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책은 주인공 온조가 의뢰자들에게서 받은 의뢰를 해결하며 사건이 일어나는데 김선영 작가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현대를 배경으로 한 글을 주로 쓴다. 현대인의 갈등과 혼란을 탐구하는 작품이 많은데 심리적 묘사와 내면의 갈등을 자세히 표현하여 독자들이 책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그중 대표작이 바로 『시간을 파는 상점』이다.

'시간'이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의미는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특히 시간을 주요 문제로 다룬 이 책에서 인상에 남는 장면과 대사가 있다. 도마뱀을 잡으면 손바닥에 남는 끊어진 꼬리처럼, 과거의 기억과 흔적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장면이다. 과거의 지나간 시간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닌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남은 그 흔적이 켜켜이 쌓여 현재의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사가 있다. '삶 전체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우린 지금 몇 시쯤 됐을까? 아마도 새벽 다섯 시?'이다. 스무 살도 채 되지 않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감명받는 부분이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빛이 조금씩 다가오는 시간. 잠을 자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대사를 보고 덕분에 미래 나의 '시간'들을 좀 더 실감 나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을 통하여

김선영 작가는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사회적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온조가 자신의 시간을 쓰며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독자들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한다. 이런 의도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있었는데 온조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보다 시간을 효율적이고 쓰게 되었으며, 의뢰를 들어주는 모습에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 역시 삶의 방향을 다잡고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 흘려보냈던 시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며,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현대의 세상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 책에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갈등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 온조가 아르바이트하며 겪은 차별이 기억난다. 최근 사회 시간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공부했었기 때문이다. 2024년 '전북 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50%의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휴식 시간이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경험을 겪은 청소년이 많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아르바이트의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은 단순한 성장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까지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을 주제로 계속해서 긴장감이 맴돌게 하는 분위기와 추리 기법,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대의 사건들로 독자의 흥미를 높여 가독성을 끌어올리며 지루할 틈이 없는 책이다. 열린 결말로 끝난 것이 개인적으론 아쉽지만,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독자들도 생각할 수 있어 이 책을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께도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도마뱀은 잡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잖아요. 어느 순간 바위틈으로 몸을 숨겨 손바닥 위에는 꼬리만 남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사건은 도마뱀 몸뚱이가 되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도마뱀 꼬리 같은 기억과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p.48)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이란 이름 모를 씨앗이다. 그저 눈으로만 훑고 지나간다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겠지만, 읽는 깊이와 방식에 따라 지식의 뿌리를 내려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나무로 자라나기도 하여 나의 성장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시간 속, 관계로 피어나는 가치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3-2 정재영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그저 흐르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을 보며 살아가곤 한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인 '시간을 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시간을 물질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가치를 다른 가치와 맞바꾼다는 것일까? 이런 수수께끼 같은 제목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며, 책에 대한 흥미로운 인상을 가지게 한다.

책이 담은 사회 문제, 자살과 새로운 접근

여고생 온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돈을 벌겠다는 꿈을 안고 '시간을 파는 상점'이란 인터넷 카페를 오픈한다. 이후 PMP 도난 사건을 시작으로 할아버지와 맛있는 식사를 해달라거나 천국의 우편 배달부가 되어 달라는 일들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각각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온조는 증명한다. 내용을 더 깊게 파보면,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연결된 부분도 많았다. 예를 들어, 물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강토의 아버지, 가족이 있음에도 홀로 돌아가시는 할머니의 고독사 등, 이 중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청소년 자살·자해 '위험 수위'…대책은"이라는 KBS 뉴스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은 우울과 주변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며 심각성을 말하고 있었다. 책에서는 자살을,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마주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주제로써 다룬다. 그러나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이라 새로웠다.

명장면, 명대사가 말하는 시간의 의미와 희망

자살의 내용은 명장면, 명대사와도 연결할 수 있었다. 온조와 이현은 책에서 자살을 시도한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 속, 책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명대사는 "네 절정은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너의 절정이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인생에 희망을 품게 해주며, 더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면

이 책은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독자에게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며, 인생의 희망도 품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내용 일부 전개가 예측할 수 있고, 끝맺음이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각 등장인물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장의 이야기도 돋보였다. 또 이 책은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므로,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책을 평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온조는 소방관으로 일하다 일찍 여읜 아버지의 부재 속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찾아냈다. 나 역시 학업에 지쳐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후, 온조처럼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또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주변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게 되었다. 이처럼 책은 평범한 나에게도 시간을 달리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읽은 독자들은 앞으로 나, 그리고 온조처럼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주변과 관계를 맺는 등으로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네 절정은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너의 절정이다. (p.204)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인생의 지도자이다. 왜냐하면 평범한 나에게도 시간을 달리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우리의 시간

3-5 구예린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 중 시간이 충분할 수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혹시나 알까? 우리를, 시간을 파는 상점 앞으로 데려다줄지? 『시간을 파는 상점』은 김선영 작가의 장편소설로, 주인공인 온조가 운영하는 상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온조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팔고 이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성취를 이룬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의 활용과 정의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낯설다고 느끼는 부분이 보였을까? 나는 '시간을 사고판다'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사고판다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흥미로웠다. 또 제목 자체가 '시간을 파는 상점'이다 보니까, 한 번 봐도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책을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벌써 과연 작가가 시간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의 것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26쪽에 '삶은 지금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아름답고, 아쉬운 건지도 모른다'와 219쪽에 '시간은 지금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순간을 또 다른 어딘가로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그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이다. 내가 이 두 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애꿎은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닐까? 지금이 있기에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책에서 강조하는 '지금'이라는 말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다. 지금은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

시간이 돈이 되는 미래

이 책을 읽으니까, '인 타임'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그 영화의 소재도 시간인데, 영화 속 시간은 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사려면 4분의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책을 읽은 후 영화 요약본을 보면서 둘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공통점을 찾으면서 시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각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관점이 다

달라 나의 한정적이었던 시간의 폭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두 작품을 비교하며 발견한 둘의 공통점은 돈과 시간의 연관성이다. 두 작품은 모두 시간을 돈의 매체로써 여기며 돈을 확장해서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이어졌다. 이것 말고도 둘의 연관성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책을 읽은 뒤 두 작품을 비교해 봐도 재밌을 것 같다.

시간을 자의적으로 사고판다는 것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과연 시간을 자의적으로 사고판다는 개념에 속할까? 이 질문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행동에서 자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의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청하여 일을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시간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이, 이렇게 스스로 시간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작은 결정들의 축적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매기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책을 통해 나는 주변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었다. 또 우리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시간을 주제로 삼은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또래의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그래서 이 책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리라 생각한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물은 포장을 풀어보기 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설렘 속에서 선물을 다 풀었을 때 기쁨과 행복, 어떨 때는 약간의 실망과 속상함이 책을 처음 봤을 때와 책을 다 읽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3-5 김소연

여러분은 살아가며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을 추천한다. 몇몇 사람들은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흥미를 느낄 것이다. 나 또한 이 책의 제목만으로도 흥미를 느꼈다. 시간을 판다는 말 자체가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은 몇 없었기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 기대되었다. 그렇게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겠다.

따뜻한 연결, 그리고 치유

이 책의 시작은 주인공 온조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 의뢰가 들어 왔지만, 점점 더 복잡한 의뢰를 받게 되고 온조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연을 통해 '시간을 판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며 온조뿐 아니라 의뢰인들도 변화를 경험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서 독자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감동하게 된다.

시간이 가는 길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읽고 난 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를 냉장고에 넣어 주세요" 중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온조가 과거와 현재,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기억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시간을 파는 상점'은 단순히 의뢰인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볍지 않은 곳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라는 말이다. 이 말처럼 시간은 정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야 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시간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았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의뢰들

이 책은 청소년 문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연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극에서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잘 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연극 자체가 소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고 몰입감이 남달랐을 것 같다. 연극의 후기들도 대부분 가족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 좋았고 큰 감동과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특히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어서 무대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몰입감과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김선영 작가님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지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청소년 모두와 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 추천한다. 나는 이 책이 의뢰인들의 사연을 통해 삶의 갈등, 후회, 희망들을 진지하게 다루며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간을 파는 상점'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시간은 그렇게 안타깝기도 잔인하기도 슬프기도 한 것인가. (p.106)



시간을 파는 상점 / 저자 김선영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

3-5 정하율

살면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한 번씩 해봤을 것이다.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은 이 질문과 같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판타지 소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시간의 소중함과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내게 제일 많이 와닿았던 문장은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이다. 이 말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는 구절이었다. 그다음은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3만 일도 채 되지 않는다."이다. 이 문장을 보고 시간의 빠름과 중요성을 느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믿고 있던 것,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이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책을 읽은 후 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한번 지나면 다신 되돌아오지 않으니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타인을 돕는 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주인공 온조는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상점 일을 시작했지만, 점점 여러 가지 일을 의뢰받으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한다. 나도 타인을 도우면 배려와 감사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작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독자들에게 시간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쓴 것 같다. 책에서 작가는 시간을 단순한 물질적인 자원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제일 주요한 자원으로 강조한다. 작가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재산이 시간이라고?

시간을 파는 상점 책과 관련된 소재의 영화로 〈인 타임〉이 있다. 〈인 타임〉에서는 자신의 시간이 화폐가 된다. 이 영화에서 가난하면 죽고 부자면 헛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가난하면 일을 많이 해야 해서 시간 소비를 많이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보단 일에 쓰는 시간이 적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로도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처: 나무위키, 네이버 맥거피날 블로그)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보내왔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책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선택을 고민하게 한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결국엔 자신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싶으면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삶은 '지금'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아쉬운 건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p.26)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시곗바늘이다. 왜냐하면 책이 주는 지식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매 순간의 가치를 새기게 하기 때문이다.



우아한 거짓말 / 저자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3-1 곽지헌

『우아한 거짓말』,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 나는 작가가 제목을 통해 말하려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이 책을 폈다. 그 해답은 이 책의 전체와 작가의 말에 있었다. 작가는 ''너만을 위해서다.'' 와 같은 말을 우아한 말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책 속에서 화연이 현지에게 했던 말들이 우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책의 작가 김려령은 서울 예술 대학을 졸업하여 2007년 완득이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아 이름을 날렸으며, 2012년 이 책『우아한 거짓말』을 펴냈다.

모순 속 호기심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죽었다.” 이 책의 첫 문장이다. 나는 이 책을 보며 호기심을 느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왜 오늘 죽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머지않아 찾을 수 있었다. 천지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여 죽은 것이 아니었다. 천지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교사의 무관심 속에서 목이 옥죄여 죽은 것이었다. 이 문장은 처음에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한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 장면 또한 기억에 남았다. 그 장면은 천지가 가족들로부터 구해지는 것 같았지만 이는 천지의 상상이었고. 그것을 깨달은 천지가 죽는 장면이었다. 조금 전 상황과 천지의 독백이 대조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마지막 독백을 통해 천지는 스스로 목을 옥죄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

처음에는 이 책을 보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그 생각은 깨지게 되었다. 학교폭력에 관해 검색하자마자 수많은 청소년 자살 사건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중에서는 오히려 책에서 일어난 것보다 심각해 보이는 사건들 또한 간혹 눈에 띄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야기 속 깨달음

그 이후 학교폭력에 더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예전과는 달리 학교폭력이 더욱 교묘해

진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2023년에 들어서면서 학교폭력 응답률이 최고점을 찍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이제야 깨달았고, 나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게 이 책을 평가할 자격을 부여해 준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최고점을 줄 것이다. 이 책은 교묘히 숨겨진 학교폭력의 양상을 고발하였고, 단지 학교폭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들 또한 다루었다, 학교의 무관심한 대응에 떨어지는 교사와 학생과의 신뢰, 또 배달·요식업과 같은 근로자들의 불평과 멀어져 가는 인권과 같이 이 책은 단 하나가 아닌 여러 사회 문제를 단 한 권에 묶어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평소 학교폭력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나 학교폭력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에게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p.1)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장작이다. 왜냐하면 타고 남은 재가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거짓말 / 저자 김려령

소설보다 비참한 현실

3-4 김의중

당신은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책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주인공의 동생, 천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이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천지의 죽음 이후 주인공인 만지는 천지가 죽기 전 자신에게 남긴 털실 뭉치 속에서 천지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게 되고, 천지에게 털실 뭉치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책을 쓴 김려령은 2007년, 소설 『완득이』로 여러 문학상을 받았고, 그 후 쓴 『우아한 거짓말』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아너리스트로 지정되었다. 이제, 김려령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아너리스트로 지정되게 만든 이 책, 『우아한 거짓말』을 읽고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과 현실에서의 비슷한 사건 등을 소개해 보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뒤바뀐 입장

내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첫 번째는 천지가 죽기 전 상황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천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이미 죽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지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이 더 두려워 죽음을 선택했다고 느껴져 안타까웠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천지가 죽게 되자 천지를 가장 괴롭혔던 화연이 괴롭힘당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만지가 동생이 죽은 후에도 탓 당하지 않도록 화연을 지키겠다고 한 장면이다. 나는 동생을 죽게 만든 원흉을 지키겠다는 만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도 느껴졌다.

소설보다 비참한 현실

소설 속에서 천지는 학교폭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은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일까? 2011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인 7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 학생은 사실 약 9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비참하고 끔찍하기도 한 것 같다.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

이 책의 후반부에서 화연은 부모님 식당의 그릇을 훔친다. 화연은 왜 그릇을 훔쳤을까? 작중에서 화연의 부모는 늦은 나이에 화연을 낳고 장사에 열중해 화연에게 주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화연은 어쩌면 그릇을 훔친다는 비뚤어진 행동으로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 만지의 친구 동생인 미라는 천지를 싫어하는 마음을 천지에게 대놓고 드러낸다. 이 행동은 화연이 천지를 괴롭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천지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장면을 통해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나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느끼게 해주었고, 나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이 학교폭력이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일들과 피해자들의 슬픔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 책을 청소년들에게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천지를 돌아오게 할 순 없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찾아내야지. 분명히 말하는데 천지 그렇게 보낸 사람, 너하고 나야. 우린 끝까지 미안해해야 돼. (p.220)



우아한 거짓말 / 저자 김려령

무심함의 대가,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신호들

3-9 김소민

최근 학교폭력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한다. 그중 한 기사 속 피해 학생은 친구들의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속에서 힘들어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기사를 읽으며 떠오른 작품이 있다. 김려령 작가의 소설『우아한 거짓말』이다. 이 작품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소녀 천지와 그녀를 떠나보낸 가족과 친구들이 남긴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놓치고 있을까?

소설『우아한 거짓말』은 평소 밝고 착해 보이던 소녀 천지가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천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가 남긴 흔적 속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폭력'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이 소설은 단순한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진 말, 무관심한 태도, 사소한 외면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절망으로 몰아갔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섬세한 심리묘사가 주는 공감의 힘

소설『우아한 거짓말』은 남겨진 사람들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천지의 죽음 이후 엄마와 언니 만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내려 한다. 친구들 또한 처음엔 그녀의 죽음을 쉽게 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온다는 내용의 심리묘사를 볼 수 있다. 특히 언니 만지는 천지가 남긴 흔적을 찾아가며 점차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과정은 매우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천지의 속마음을 담은 문장 "마지막 남은 가장 두툼한 털실 뭉치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가면, 내가 너무 가엽습니다." 이 문장은 마치 내 마음 한구석을 찌르듯 깊이 파고들었고, 한동안 그 문장에 대해 곱씹으며 생각하게 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또한 천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엄마와 언니와 함께 서로를 부둥켜안는 상상을 했다. 비록 현실은 아니었지만, 천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따뜻한 장면을 마음속에 간절히 그려왔을 것이다. 그 상상이 더욱 슬프고도 애틋하게 느껴졌고, 나 역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은 단지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며, 아주 작은 관심과 공감이 때로는 한 사람을 절망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한다. 책을 덮고 난 뒤, 나는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혹시 말없이 힘들어하는 친구는 없는지, 내가 먼저 다가간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는 않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아한 거짓말은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한 특별한 책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마지막에 올린 것은 매우 작은 돌이었을지도 모른다. 층층이 쌓인 돌들이 더 이상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줄도 모르고, 작은 돌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만 와르르 무너져버렸을 것이다. 억울하겠지. 그저 작은 돌 하나 올렸을 뿐이니까. (p.193)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전등이다. 불을 켜면 사물의 모양이 또렷해지듯, 책을 펼치면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차분히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또한 전등을 켜서 방향을 안내하듯 책은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전등이다.



우아한 거짓말 / 저자 김려령

잘 지내고 계신가요?

3-9 신송화

'우아한 거짓말'이란 어떤 거짓말일까. 나는 처음 책 제목을 보고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제목과는 반대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 속 주인공 천지는 친구 화연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이야기는 죽은 천지의 기억과 남겨진 이들의 현재 상황이 번갈아 등장하며 전개된다. 또한 시점을 자주 바꾸어 여러 인물의 감정과 입장을 서술한다.

폭력의 기준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언어폭력이 '폭력의 기준'에 부합하는, 누구나 폭력이라고 느낄 만한 말들에 제한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폭력의 기준'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천지를 힘들게 한 말들은 모두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조잡한 말들이 모여 천지를 죽게 했다. 이 책은 '말의 힘'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 깊이 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는 문장 하나가 있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모릅니다."라는 문장으로, 천지가 우울증을 숨기고 있었음을 밝힐 때 한 말이다. 이 부분은 '진정한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요즘 들어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가족이 늘고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믿음에 오히려 더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중 우리가 정말로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책은 이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은 무채색이 아니다.

나는 모두에게 이 책을 한 번씩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책은 인물을 '가해와 피해', '선과 악'으로만 선을 그어 나누고 있지 않다. 모든 인물이 갖가지 면을 가지고 있도록 입체적으로 설정해 이야기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고, 한 인물과 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이야기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사고를 해보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나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 전체의 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대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인 천지의 꿈 장면에서는 천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엄마와 언니, 그리고 화연까지 모두가 천지를 위해 달려와 준다. 혼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천지였기에 현실과 꿈이 대비되어 더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천지가 진정으로 바랐던 건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어쩌면 '우아한 거짓말'은 천지를 괴롭혔던 말들이 아니라, 천지가 우울증을 감추기 위해 힘들지 않은 척했던 거짓말들인지도 모른다. 이 책이 하고자 한 말은 결국 이게 아닐까 싶다. 천지를 죽게 만든 것은 말이지만, 또 다른 천지들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한마디의 말이다. 번하고 식상한, 그러나 마음이 담긴 한 마디의 인사말이 그 어떤 우아한 말들보다 가치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평범하고도 진심이 담긴 안부 인사를 건네보기를, 그리고 그 인사가 수많은 천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이름이다. 이름이란 누군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름이 없다면 누군가가 존재하더라도 그의 존재를 알릴 수 없는 것처럼, 책이 없다면 지금 나의 존재는 의미를 잃을 것이다.



성형수술이라는 탈을 쓴 중독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1 하경현

뉴스를 보면 청소년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통으로 “외모가 좋으면 취직이 잘되고 연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이런 현실을 비판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내용이 뭘까?

주인공은 성형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어느 날, 얼굴을 다쳐 병원에 갔다가 코가 좀 내려앉았다는 말을 듣고 성형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플라스틱 빔보’라는 클럽을 만든다. 성형수술을 하려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로 성형에 관심이었던 주인공이었지만 같은 반의 톱스타 리샤(본명:서리은)가 성형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 리샤가 죽기 전 하고자 한 ‘안티 플라스틱’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만나 플라스틱 빔보에서 탈퇴하고 ‘본맹청청’ 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깊이 보면?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주제를 찾아보곤 한다. 그럼,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책을 관통하는 명장면과 명대사를 알아보자. 먼저 명장면이다. 이 책의 명장면은 주인공이 플라스틱 빔보 클럽을 탈퇴하는 장면이다. 주인공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생각의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클럽을 나오는 장면이 명장면이라 생각한다. 그다음은 명대사다.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넌 성형수술하려고 플라스틱 빔보 클럽까지 만들었다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애잖아. 너 같은 애가 꼭 필요해, 이 운동엔”이라는 대사인데 성형수술 반대 운동인 ‘안티 플라스틱’을 하자고 설득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다 그만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너(주인공)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뭘까?

항상 사회 고발물과 같은 소설이나 영상을 보면 드는 궁금증이 있다. ‘왜 저 창작자는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영상 같은 경우는 찾기 힘들지만, 소설에서는 찾을 수 있

다. 작가의 머리말에는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작가가 신문 기사를 읽던 중 한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책을 다시 썼다는데 우리는 책의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성형 중독에 빠진 톱스타 '리샤'라는 등장인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성형수술을 한 번 했다가 계속 다른 성형수술을 불러오는 걸 보여주어 마치 담배와 마약같이 중독되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 또 주인공의 언니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사회를 비판한다.

책을 읽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든다. 이 책 또한 그렇다. 처음엔 성형수술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책은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로 물들여져 이 현실이 성형을 부르고 성형 중독까지 될 수 있는 사회의 악순환을 정확히 저격한 책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넌 성형수술하려고 플라스틱 빔보 클럽까지 만들었다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애잖아. 너 같은 애가 꼭 필요해, 이 운동엔. (p.139)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우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그 책들 하나하나에는 내용, 지식이 우주의 은하단처럼 정말 광활하고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3 김선민

『플라스틱 빔보』의 표지를 본 적이 있는가? 부자연스러운 한 여인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을 수리 중인 공사자들이 있다. 여기서 성형수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신현수 작가는 기자로 일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작가로서의 발판을 다졌다. 지금은 청소년 소설과 동화 등을 주로 쓰고 있다. 그 책 중 하나가 『플라스틱 빔보』이다. 신현수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도우려고 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

이 책의 명장면과 명대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먼저, 명장면은 혜규가 자신의 원래 얼굴을 사랑하며 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장면이다. 성형수술의 숨겨진 부작용들을 듣고 바로 자기 생각이 틀렸었다고 성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바뀌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혜규는 '본맹청청'이라는 본판 유지를 맹세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을 만들며 행동으로 실천해 냈다. 대사 중에 '자신의 본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외모보다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대사가 있다. 이 대사는 외면의 아름다움이 얕고 일시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자아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성형수술, 부작용 생각 안 하면 큰코 다친다!

KBS 뉴스에서 "예뻐지려다가 목숨 잃는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 뉴스의 내용은 책에서 리샤가 양악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일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뉴스를 통해 가벼운 생각으로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너도 달라질걸?

이렇게 성형수술이 심각하고 안 좋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혜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외면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면의 완벽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형수술을 개인의 자유로만 보다가 사

회적 압박이나 외모지상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리샤의 비극이 이러한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더 강조했다.

혜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외모에 대한 압박이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 책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았다.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다. 그 이유는 주제의 깊이, 사회적 메시지, 캐릭터의 매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다소 빠른 전개와 일부 결말의 처리에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내면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다. 만약 자신이 외모로 인해 스트레스받고 성형수술을 고민 중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을 매우 추천한다. 또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그래도 저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타고난 본판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임을 자랑스레 여기며, 죽을 때까지 고이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렵니까? 같이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p.206)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문이다. 한 권의 책을 열 때마다 미지의 영역, 다른 문화, 다양한 관점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빔보,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갈림길에서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5 현채원

10대에게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성형수술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도 보인다. 학교에서도 종종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책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성형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아챘다. 책 앞표지에는 얼굴에 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책 뒤표지에는 외모, 성형이란 단어들이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또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덫'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자신을 찾아가는 길

이 책은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중 "당신은 원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이 대사는 자기 본모습의 수용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주인공인 혜규가 플라스틱 빔보 클럽을 나가면서 "나 그냥 생긴 대로 살래"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또 사회적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 것이기에 명대사, 명장면으로 꼽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 10대의 성형 관심

우리 사회에서도 SNS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미의 기준에 맞춰 성형수술을 받는 10대들이 존재한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형수술 경험 및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한 이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7%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93.4%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에 불과했던 청소년 성형 경험률은 2015년 7%, 2020년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0대가 선택하길 바라는 작가

이 책을 쓴 작가는 신현수 작가이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10대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의도가 있다. 작가는 대한민국을 성형수술 천국이라 표현한다. 작가는

성형수술에 많이 노출되고 때로는 빠져버리는 10대들에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미용 성형수술에 관한 옳고 그름을 알려주거나 번한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작가는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고 성형수술로 외모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믿는 10대들에게 이 소설로 한 번쯤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책을 읽기 전, 성형수술은 치료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서 성형수술이 사회에서 무조건 배제되길 원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입장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이 꿈꿔 왔던 변화를 이루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인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면 꼭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다. 『플라스틱 빔보』는 성형수술이라는 주제 아래 10대들에게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형에 관한 생각, 선택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다. 이 책을 성형수술의 두 갈래에 서 있는 10대들에게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가짜? 성형 수술한 얼굴이 가짜라고? 진정 그런가?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의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짜인가? (p.98)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이란, 멈추지 않는 여행이다. 왜냐하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떠나기 때문이다.



외모지상주의, 이대로 괜찮을까?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7 김지현

오늘날, 어른과 아이 구분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성형에 관심이 크다. 이 책의 주인공 혜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성형에 관심 두게 되면서 플라스틱 빔보 클럽을 구성하고 친구들과 활동한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관심 두다가 사고를 당한 소희, 양악수술을 받다 사망한 슈퍼스타 리샤를 본 혜규는 성형외과의 숨겨진 비밀을 앎과 동시에 성형의 위험을 깨닫는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성형을 이야기로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혜규에게 큰 영향을 미친 성형,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영향,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SNS에 힙딥, 승마살, 중안부 등 외모와 관련된 여러 용어가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용어를 사용하며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모에 관심 가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 나아가 성형을 고민하는 학생도 생기고 있다.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성형할 자유는 있지만, 어린 나이에 성형을 결정하는 몇몇 학생들이 조금은 걱정되고 안타깝다.

작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여러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알려주고자 썼을 것 같다. 주변에 일어나는 성형 사고를 이야기로 쓰면서 성형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영향받는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작가의 생각에 나는 동의한다.

이 책이 교훈을 준다고?

이 책에 있는 여러 멋진 문장들은 독자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킨다. 그중 감명 깊은 구절은 첫째,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 그건 결국 너를 갉아먹을 뿐이야.”를 꼽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었다. 뭐든 얻고자 하는 게 많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실수도 잦아지고, 내 기대치에 결국 못 미치게 되면 나를 깎아내리게 된다.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기에 자기 자신을 구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될 순 없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겪어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더 감명 깊었다. 또한 이러한 명대사들이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완벽주의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줘서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위로받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외모로 고민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전문 의사들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1~2년 경력인 의사, 즉, 고스트 의사들도 몇몇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 인물의 정체성 혼란을 다룸으로써 자아 정체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요즘 외모에 고민이 있거나 현대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 내 몸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노댕쌤이 성형수술을 한 걸 싫어하면서 나는 왜 성형수술을 하려는 걸까. 앞뒤가 안 맞잖아. (p.126)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거울이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무언가 깨달은 게 있다면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을 건드린 것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책은 내 숨겨진 감정도 느끼게 해주는 내면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



성형, 선택의 문턱에서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9 김시우

한 번쯤 외모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요즘 타인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모에 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성형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혹성 성형 광고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직 성형수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신현수 작가는 외모와 성형수술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플라스틱 빔보』를 썼다.

하루에도 수없이 성형수술 카페를 기웃거리는 혜규와 십 대들

책의 주인공 혜규는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사고를 겪은 뒤 외모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처음엔 성형을 지지하며 '플라스틱 빔보' 카페를 만들지만, 주변에서 성형수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고 결국 성형을 반대하는 '안티 플라스틱' 카페를 만든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독자는 성형수술에 대한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해 보고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책의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은 최종 상담까지는 원장이 진행하지만, 마취 후 수술은 새도 닥터가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 새도 닥터는 자격증을 딴 지 몇 년 되지 않은 의사이거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수술실 뒤에서 몰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일은 처음 알았다. 이처럼 이 책은 성형수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위험성을 포함하여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형수술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외모와 가치, 그 경계에서 고민하게 하는 책

성형수술에 관한 소설은 대체로 "성형 수술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내면을 가꿔라", "성형수술은 성인이 된 후 신중히 판단해라"라는 식의 진부한 교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이 책은 '플라스틱 빔보' 카페와 '안티 플라스틱' 카페가 서로 존중해주며 20년 후 성형한 얼굴과 하지 않은 얼굴, 즉 성판과 본판의 대결을 펼치는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하고, 성형의 판단은 십 대들 스스로에게 맡긴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화장은 물론이고, "나 쌍수나 할까?", "커서 코 수술이나 해야겠다"라며 쉽게 성형을 다짐하곤 한다. 이 책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그 중심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책을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해 외모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정말이지 난 '강뮬란'이란 별명이 싫기는커녕 영광스럽고 좋기만 하다. 내 얼굴이 만화영화 〈뮬란〉의 주인공 뮬란을 닮았대서 아이들이 놀림 삼아 부르지만 말이다. 뮬란의 생김새도, 영화 속 캐릭터도, 내 맘에 쏙 드니까 (p.9)



외모가 과연 전부일까?

플라스틱 빔보 / 저자 신현수

3-10 최혜민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길,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신현수 작가의 『플라스틱 빔보』는 단순히 성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취하는 것이 아닌, 독자들이 다양한 시선에서 성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책이다.

첫인상만으로 이 책의 내용이 기대되었던 이유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성형수술과 관련된 청소년 소설이라는 점에서 큰 흥미가 생겼다. 청소년 중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외모는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형수술'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강한 흥미를 느꼈다. 반면, 책의 표지만으로는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나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현대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날카롭게 지적한 저자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중반쯤에 나오는 리샤가 죽은 후 발견된 리샤의 일기 내용이다. 그 내용 중 "성형수술은 물귀신이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왜?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으니까."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나는 이 문구가 성형의 위험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성형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리샤의 일기를 통해 저자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아나운서 지망생인 혜규의 언니, 혜윤이 성형을 결심하는 장면 역시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부분을 통해 나는, 단지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와 압박 때문에 성형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사회에서 '미'는 어쩌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 암묵적인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책에 실음으로써 저자가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저자가 『플라스틱 빔보』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성형수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혜규와 혜규의 친구들에

게, 또 독자들에게 “과연 외모가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하여 책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본맹청청의 이야기를 통해 외모는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성형을 단순 ‘아프겠다’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성형을 결심하는 사람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 생각 등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은 성형수술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형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의 마음과 사회적 시선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난 아주 쪼금, 그렇다 쪼금만 더 예뻐지고 싶었다. 미국에 있을 때 에이전시에서도 그걸 원했다. 그래서 처음엔 눈꺼풀만 조금 집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p.148)



삶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는 법

훌훌 / 저자 문경민

3-4 우민혁

훌훌 부는 바람처럼, 이 책은 가볍게 다가와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그러나 그 여운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훌훌』,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내는 느낌이 나를 이 책으로 끌어들였다.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걱정거리 하나쯤은 안고 있지 않은가? 설레는 감정을 안고 펼친 책의 첫 장에는 재난 영화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주인공 유리가 그 포스터의 주인공에게 이입함에 따라, 나도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봤다. 재난이라는 공포가 주는 압박감이 여러 고민을 나타내주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유리의 서술에 따라 소설에 이입한 덕분에 그 후에 이어진 유리의 상황들에도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 서유리는 여느 사람들처럼 고민이 많은 친구이다. 유리가 이 고민과 걱정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궁금해져서 계속 다음 장을 넘기게 되었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 책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준다. 유리처럼 입양아인 세윤이를 대신해서 주봉이가 대신 화내주는 장면은 친구 간의 우정이 돋보이고 입양에 대해 한층 더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게 해서 인상 깊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입양을 무겁게 생각하면 오히려 입양아들이 더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잖니"라는 대사 또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아 인상 깊었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땐 여러 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에 비해 성숙해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서 대화할 때도 더 신중해지는 것 같다.

소설에서 현실까지

책에 등장하는'입양'은 우리에게 마냥 낯선 주제가 아니다. 입양에 관한 얘기는 사회 곳곳에 등장한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입양 기사를 봤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명 연예인은 아이들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라고 말해주며 입양 사실과 친모의 존재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과 기사를 보면서 나는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

려주고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친부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정이 살아있는 문체

이처럼 책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책의 문체 덕분이다. 이 책의 문체에는 감정이 살아 숨 쉰다.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문체를 보며 나는 감탄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문체 덕분에 독자들은 어느새 책 속에 빠져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모두에게 추천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추천한다. 입양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또한 유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헤쳐 나가는 모습은 고민이 많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교훈이나 인생에서의 힘든 일을 헤쳐나가는 법 등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청소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길 바란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잖니. (p.207)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바람이다. 스치며 지나가지만, 흔적은 남으며 때로는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가슴을 휘몰아치며 돌풍처럼 강렬하게 다가온다. 나에게 여운을 남기고 지나가는 책들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며 훌훌 날아가지 않을까.



서로의 손을 잡고, 훌훌

훌훌 / 저자 문경민

3-5 차선민

책을 펼치기 전, 뒤표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버거운 덴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마음이 가붓해지는 법은 어쩌면 단 하나.” 저마다의 아픔과 사연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은 결국 하나라는 뜻일까? 『훌훌』은 주인공 유리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연우를 만나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며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간다.

책에는 읽다가 멈칫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간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문장이 보였다.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언제 되새겨도 반짝이는 기억이었다.” 이 문장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기억을 채워 나간다. 서로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기억들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그런 기억이 있다는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위로가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유리는 친엄마와 양엄마에게 버려졌다. 이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현실에서도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문제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청소년의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가정의 갈등, 정체성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뜻이다. 『훌훌』 속 인물들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두렵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아픔을 마주하며 나아간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책 속 인물들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훌훌 가벼워진다는 것

작가는 『훌훌』을 쓰면서 친절하게 내민 손을 떠올렸다고 한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은 사람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그림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세상이 알아야 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다. 책을 읽으면서 '훌훌 털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치유는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온다. 무엇이 힘들고 아픈지 이야기해야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 시작은 서로를 향한 관심에 있다.

『훌훌』에 주고 싶은 점수는 5점 만점이다. 이 책은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전에는 고통을 덮어두는 것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함께 인정하고 아파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느라 서로에게 무관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 『훌훌』이 그 답이 되어 주어 많은 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훌훌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각각 다른 것 같더라. 감당해 낼 여건도 다르고.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야.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잖니. (207p)

힘들 때 웃는 거, 효과가 상당해. 이거 경험담이야. (p.208)



함께한다는 것

훌훌 / 저자 문경민

3-8 최정원

책 한 권을 고를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는 표지나 제목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편이다. 그런 나에게 『훌훌』은 정말 특별한 책이다. 처음에는 표지를 보고 재미없고 흔한 이야기일 거로 생각했지만,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갈수록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이 산다고 모두가 가족일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다양한 가족이 존재한다. 『훌훌』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다. 작가는 책 속에서 입양 가정의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인데 주인공은 입양아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동학대를 당한 동생이 생긴 것과 같은 상황 말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친해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극적인 내용만이 기억에 남을까?

『훌훌』은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결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가정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 예상했다. 유리가 입양아인 걸 세윤이가 알고 있었을 때는 유리에게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자극적인 소재에 익숙해진 내게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없는 게 도리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훌훌』에 담긴 마음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각각 다른 것 같더라. 감당해 낼 여건도 다르고.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야."이다. 나는 힘들 때면 다른 사람과 불행의 크기를 비교하며 스스로 위로하곤 했다. 그런데 이 대사를 보고 머리가 띵해졌다. 나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시

에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었다. 그 답은 작가의 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작가의 딸이 자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장애인이 감동을 자아내는 소품이나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걸 우려해서, 자기 소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입양 가족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말 또한 흥미로웠다. 민감한 주제를 불편하지 않게 다룰 수 있었던 건 이들의 마음이 담겨서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유리와 할아버지, 연우와 같은 등장인물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훌훌』은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모범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어서 더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인 소재와 감정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깊이 있는 작품을 찾는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설령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야 (p.207)



아픔의 무게를 훌훌 털어 버리기

훌훌 / 저자 문경민

3-11 홍하율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가족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맞고 틀린 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어, 사랑 한 마디만 있으면 어떤 관계든지 성립하니까. 하지만,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땐 그 사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십 대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또는 학업 스트레스 등 청소년 소설에서 다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줄로만 알았다.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나를 부른 순간이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려 했던 의도와 목적을 알아두자. 작가는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닿길 원했지만, 무엇보다 입양 가정으로부터 지지받길 원했다. 입양을 소재로 한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나도 동의한다. 나와 다른 모습이어서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점차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모두를 응원해.

만약 당신의 동생이 죽은 새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여 보자. '작은 생명체의 귀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사체를 왜?'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는 주인공의 동생인 연우의 상황과 같았는데, 연우는 떨어져 죽은 새가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다. 이는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엄마를 생각하며 한 행동일 것이다. 작가는 연우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죽은 새를 통하여 연우의 처지를 더욱 인상 깊고 비극적으로 표현했다. 명장면을 꼽자면 이 장면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명대사는 세윤이 유리에게 유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내며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세윤은 "네게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것처럼."이라 말하며 유리에게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상을 보낸다. 그 영상은 입양의 날에 관한 것이었고, 아기인 유리와 유리를 입양한 서정희 씨가 출연했다. 자신의 과거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유리에게 현실을 직면할 기회를 준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되었다.

엄마 아빠 나를 왜 입양하게 되었어요?

현실에서의 입양 가정에 관한 영상이 있다. 입양된 아이들이 자신을 입양한 부모에게 그동안 품고 살았던 궁금증을 질문하는 내용이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란스러웠을 수 있지만 지금은 차분한 태도로 임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의 모습은 무척이나 닮았었다. 입양 가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저 영락없는 한 가족이었다. 이처럼 사람마다 극복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 가정처럼 서로의 아픔을 서로 의지하며 해결하는 모습이 이 책의 내용과도 딱 들어맞았다.

내가 이 책에 대해 점수를 매겨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미 많은 평론가와 독자들에게 인정받은 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또는 지금 내 앞에 놓인 막막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 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과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쳤더라도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았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걷다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탁 트임이다. 내가 있는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책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무한해질 수 있고 나는 그것들 모두를 누린다.



그날 이후, 그날 덕분에

유진과 유진 / 저자 이금이

3-3 문현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소녀가 같은 반에서 재회한다면, 과연 두 소녀의 과거에도 공통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처음 이 책을 보게 되었을 때 동명이인에 얽힌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같은 유진 두 명이 각자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두 소녀에게는 믿지 못할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두 유진이 심상 불멸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

동명이인인 두 소녀,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은 어렸을 적 유치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리고, 운명처럼 중학생이 되어서 서로를 다시 마주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완전히 빠져들었다. 찬란한 노을처럼 스며드는 책 안에서 결코 잊을 수 없던 대사가 있었다. '시작은 누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지". 이 대사는 작은 유진의 아픔을 알아차린 댄스팀 단장이, 그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장면에서 나왔다. 유년 시절 성폭력을 당했던 작은 유진은 단장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걱정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이라도 그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더 나아가, 책의 뒷부분에서 작은 유진이 그녀의 엄마 마음에 못질하면서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었다. 왜 갑자기 유진은 여태 묵혀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일까? 작은 유진은 주변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과 자신에 대한 애석함을 느꼈을 것이다.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그들의 부모님과 정반대인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쌀쌀맞게 대하는 엄마에게 서럽고 분하여 속마음을 분출한 것 같다.

책에서 다룬 사례가 꾸며낸 게 아니라고?

책의 유치원생 성추행 사건이 단지 상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었다. KNN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에 부산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영어 유치원의 강사가 5살 유치원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례를 알게 된 후, 굉장히 분했다. 유치원생들은 아직 뇌도 몸도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한다. 그런 시기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일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쉬운 요소들을 보완할 만큼의 참신한 서사

『유진과 유진』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목차마다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점도 바뀌는 것이 몰입을 깰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는 점이었다. 걱정과는 달리, 계속 읽다 보니 내용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워서 그 단점이 오히려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느꼈다.

책 『유진과 유진』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특히 피해 이후에 계속되는 고통과 그의 회복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데, 책에 작은 비중으로 나오는 작은 유진의 엄마는 상처를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모습을 보며 흑역사처럼 지워버리고 싶던 괴로운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불어, 나는 이 책의 전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사회의 문제점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만약 이 책을 읽을지 고민이 된다면 87, 88쪽만이라도 읽어보길 바란다. 읽게 된다면, 시작함과 동시에 어느새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떫은 감이다.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천천히 곱씹을수록 안에 숨어 있던 맛이 퍼져서 깊은 여운을 남겨주기 때문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랬어.

유진과 유진 / 저자 이금이

3-4 송한서

『유진과 유진』은 청소년 문학 작가 이금이가 쓴 작품이다. 제목을 딱 보았을 때는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발머리 아이가 머리 묶은 아이를 뒤따라가는 표지 그림을 보니 더더욱 책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이금이 작가의 첫 청소년 문학이자 한국 청소년 문학의 본격화를 알린 이 책이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상처를 다룬다기에 현재 청소년인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상처일지 궁금해졌다.

같은 유진, 다른 유진

이 책은 차례가 바뀔 때마다 서술자가 바뀌는 구조를 띠고 있다. 처음에는 읽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 오히려 더 신선한 발상으로 다가왔다. 책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둘 다 이유진이어서 유치원에서 별명이었던 큰 유진과 작은 유진으로 그들을 구분 지었다. 그들은 어릴 때 같은 일을 겪었지만 각자 가정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큰 유진은 그 시기를 가장 사랑받았던 때라고 기억했고, 작은 유진은 그 기억을 잃었다. 오히려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그녀가 본인의 부모를 새 부모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를 차갑게 대했다. 큰 유진의 가정은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지만 작은 유진의 가정은 최소한의 관심만 주는 차가운 분위기였다. 이를 작가의 좋은 표현으로 묘사한 점이 좋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책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졌던 장면은 집에 돌아가기 싫다던 작은 유진을 위해 소라와 큰 유진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은 유진과 함께 하루를 보내주었던 장면이다. 그들도 부모님께 충분히 혼날 만한 상황이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티 하나 내지 않고 작은 유진이 미안해하지 않게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같이 가주었다. 이는 작은 유진에게 따뜻한 우정과 의리를 느끼게 해준 것 같았다. 또 좋았던 문장은 “살면서 받는 상처나 고통 같은 걸 자기 삶의 훈장으로 만들지 누덕누덕 기운 자국으로 만들지는 자기한테 달린 것 같아.”라는 문장이다. 처음 겪어보는 상처로 인해 점점 고민이 많아지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았다. 이 말을 통해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상처가 오히려 의미 있었거나 나를 좀 더 가꾸어 나갈 수 있었던 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훈장으로 남기는 것은 어떠냐고 말해

주고 싶었다.

현실이 되면 안 되는 이야기

이 책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커서도 아물지 않는 흉터로 품고 있다. 2003년에 아동 성폭력과 그 일이 대한 신고 누락 피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보다 그 사건 속 인물들의 행동이 작품과 비슷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일이 피해자의 잘못인 양 이야기했다. 피해만 있고 책임은 없던 그 사건이 작품과 가장 흡사했고, 독자들이 현실과 비교하여 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때의 일로 인해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을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에 안쓰러웠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책이라고 평하고 싶다. 책을 읽은 후 상처를 더 아프게 품었었던 나도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한 책 덕에 상처에 대한 내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처를 너무 큰일로 여겨서 아파하는 청소년들에게,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갈등에서도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또한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아이를 대하기 어려워하거나 상처 입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될 때 이 작품을 읽으면서 부모의 관점에서 공감하거나, 혹은 아이의 입장을 접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또 다른 유진과 유진아, 네가 겪은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게 무슨 일이 있었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렴. (p.304)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거울과 같다. 때로는 마주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거울과 같은 매개체가 있어야만 책에서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과 유진 / 저자 이금이

상처를 기억하는 용기

3-10 이은서

중요한 사진이나 서류가 구겨져 있어 다시 펴보려고 애썼던 적이 있는가? 아마 한번 구겨진 종이는 아무리 펴려고 해도 구겨졌던 흔적이 남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한 번 생긴 상처는 흔적을 남기며,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이금이 작가의 소설 『유진과 유진』은 두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미처 알지 못했던 상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책의 서술자가 두 명이라고?

이 소설은 두 소녀의 시점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구성은 두 소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소설의 몰입도를 높이지만, 독자들의 상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인칭 시점에서는 서술자 한 명을 제외한 인물들의 감정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에, 독자가 이를 추측하고 상상하며 흥미를 느끼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두 등장인물의 속마음과 감정이 모두 서술되면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나무의 옹이가 뭐겄어? 몸뚱이에 난 생채기가 아문 흉터여. 그런 옹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이 대사는 외할머니가 작은 유진에게 한 위로의 말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이다. 우리는 흔히 상처는 숨기고 지워야만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소설 속 두 유진도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나간다. 이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잊지 않고 마주하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외면과 침묵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상처를 다루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 그

치지 않고, 사회와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큰 유진을 향한 건우 엄마의 말, 그리고 작은 유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는 사회 분위기와 현실을 보여준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게 된 작은 유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 풍요도 완벽한 성적도 아닌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였을 것이다. 유진과 유진은 이러한 현실을 문학 작품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상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소설은 우리가 상처와 마주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책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동시에 책 속의 두 '유진'을 너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유진'들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느이 식구들은 니가 영영 잊어버리길 바랐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 늙어서 노망난 것도 아닌데 파릇파릇하니 자라는 것이 자기 겪은 일을 기억 못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알고, 그러고선 이겨 내야지. 나무의 옹이가 뭐겠어? 몸뚱이에 난 생처기가 아문 흉터여. 그런 옹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p.166)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창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 그 밖을 보여주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 저자 이꽃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3-4 양예담

현재와 과거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한 일이었다면 많은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을 것이다.

의문스러운 제목

내용을 유추하기에는 다소 난감할 수 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쓴 글일지 잘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두 소녀는 왜 서로를 믿지 못했을까?

책 속 2016년도에 사는 딸인 은유와 1982년의 어린 나이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엄마인 은유는 왜 서로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500원짜리 동전은 198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기에 엄마는 처음 받아본 500원이라고 신이나 하며 주인공에게 전달했지만, 현대에서는 흔하디흔한 동전이기에 주인공은 그저 장난인 줄로만 알았던 것 같다.

가족의 소중함과 애틋함.

엄마인 은유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전할 수 있게 된 진실은 일면식도 없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죽은 엄마가 누군지 찾아달라는 주인공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던 과거의 은유가 사실 현재 은유의 엄마였다는 것이다. 암에 걸려 수술해야 하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두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한 말 때문에 수술하지 않기로 한 과거 은유의 모성애 깊은 결정이었다. 이 책의 가장 강렬한 부분이었다. “나는 내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너를 알게 해준 신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기도할 거야”라는 엄마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 마디가 심금을 울렸다. 딸을 원망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 모성 깊은 절정과 말은 모두를 충분히 눈시울을 붉게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이 책을 읽으며 몇 년 전 들었던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출산 중 아이는 살고 엄마가 죽은 사례였다. 그 아이 역시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와 길고 긴 대화를 통해 진실을 알고 펑펑 울었다. ‘이 아이

에게도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 우체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동시에 삶을 시작한 모든 아이가 한 번쯤 겪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크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은 가족의 소중함과 애틋함이 담긴 글이다. 읽다 보면 자기의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고마운 책이다. 또, 이야기를 통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 모성애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로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픈 책이다. 부모님에게 항상 화만 내는 사춘기 시절의 아이에게는 분명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아이와 잘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부모에게는 아이의 심정과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자녀에게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누구든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면 읽어보면 좋을 뜻깊은 책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딸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울고 웃는 평범한 일상이 분명 누군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일 거야. (p.29)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연필이다. 왜냐하면 작품의 결말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를 내 생각을 바탕으로 원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 저자 이꽃님

3-8 김시온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기적일 것이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은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나는 평소에 이꽃님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기에 이번 책이 기대되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표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제목은 오히려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책에서 말하는 '세계를 건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물음 하나가 나를 책 속으로 끌어들였다.

아름다운 내면의 성장

책 속에는 마음을 위로해 주고, 삶에 대해 조언하는 따뜻한 글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은 두 문장을 뽑아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문장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 많이, 더 자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라는 글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에게 괜히 심술을 부릴 때가 있다. 항상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을 일깨워 준다. 두 번째 문장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라는 글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나의 과거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 또한 상처받았던 경험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이 문장에 특히 공감이 가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외적인 모습도 많이 바뀌지만,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내면도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작가가 '가족'이라는 주제로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중점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국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야 그 답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작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이별과 만남, 사랑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그 과정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베풀게 된다. 그렇기에 인물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우리는 어떠한가?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차별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990년대에 사는 은유는 모든 것에 있어 완벽한 언니와 틈이 날 때마다 비교당하기 일쑤였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언니 반만큼이라도 해 봐라."였을 정도다. 이 내용을 읽으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 사례를 찾아보았다. TV 프로그램 '김창옥쇼 3'에 두 딸과 어머니가 출연했는데, 막내딸이 예쁜 언니와 비교당하고 외모로 차별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말할 때, 상대를 배려하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묘한 끌림이 있다. 책을 펼치면, 이야기가 편지로 전개되는 독특한 형식이 눈길을 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금세 빠져버린다. 내가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가족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이다. 각 인물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비춰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 책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만, 특히 소통이 줄어든 10대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읽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 삶을 돌아보게 해준 이 소설이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아빠는 왜 더 빨리 달려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나는 투덜대기만 하고 달리기를 멈춰 버렸어. 아빠는 내가 달리지 않은 만큼 더 많이 달려야 했어. 길이 그렇게 멀어졌는데도 한 번도 투덜대지 않고 나만 보면서 묵묵히. (p.235)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깊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책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 번 읽기 시작하면 파도에 휩쓸리듯이 금세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책에 깊은 곳에서 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청소년의 작가 이금이의 진로 교과서

주머니 속의 고래 / 저자 이금이

3-1 김주영

이 책은 '청소년의 작가', 이금이 작가의 두 번째 청소년 소설로, 꿈을 찾아 방황하는 중학생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 이금이 작가는 1962년생 소설 작가이며, '감동을 주기 위해선 공감이 먼저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독자의 관점에 다가가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작가이다. 이 점을 오늘의 주인공 『주머니 속의 고래』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장이 넘어갈 때마다 서술자가 바뀐다는 것이다. 왜 이런 구조를 가졌을까? 지금부터 작가가 주머니 속에 어떤 고래를 넣어주었는지 알아보자.

유쾌한 서술, 무거운 질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마치 실제 중학생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 솔직하고 유쾌하다는 것이다. 해학적이고 쉬운 서술 덕분에 아이들도 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윤딴딴의 〈윤딴딴〉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 자신의 학창 시절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짓궂게 놀고, 때론 엉뚱하고, 때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3분이라는 짧은 노래에서도 주인공의 갈등과 성장, 나름의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다르고도 닮은 두 창작물은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라는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남겨두었다.

동화의 정석

아시다시피 이 책은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주장문도, 설명문도 아닌 문학 작품 소설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계속해서 무거운 질문들을 던진다. 아니, 질문을 남긴단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우리는 진정 꿈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는 없는가? 끊임없이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따라오다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 역시 이 글을 읽고 달라진 점이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한 꿈도 정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이 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을 보니 부끄러운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나아갈 기회를 준다.

이야기는 독자와 '함께' 현재진행형

"도착이란 건 없어. 끝도 없고. 오직 가는 길뿐이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사이다. 이 대사가 나온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데, 네 친구가 각자의 진로에 따라 뭉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다 함께 만나자는 약속을 잡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이야기에서 네 주인공의 마지막 만남이다. 그러면서 각자의 집 방향으로 하나둘씩 흩어지는데, 이 이야기 전체를 요약한 장면이 아닐지 생각된다. 넷이 바라던 하나의 꿈, 그렇지만 멀어져야만 하는 근거로 가득 찬 세상. 그러고 보니 나도 내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 나의 꿈은 과학자였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던 날, 언뜻 어른이 얼마 남지 않았단 생각이 들었다. 아직 어떻게 해야 과학자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5년 후면 어른이 되고, 15년 후면 직업을 갖는다. 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나?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모두가 고등학생이 될 뿐, 완전히 꿈을 이루거나 확정 지은 인물은 없다. 이 역시 현재 중학생인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닐까? 바로 이 부분에서 공감에서 비롯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 책은 많은 교훈을 주지만, 꿈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친구들에 대한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건 이 책의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자면, '독자들에게 손을 내민 책'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다가와 주는 아름다운 서술과 그 속에서 보이는 동화의 순기능, 그리고 교훈까지. 매우 훌륭한 책이다. 마무리로 이 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다. 바로 앞서 언급한 아쉬운 점 때문에 1점을 감점하였으나, 그 외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책은 중학생 독자들의 공감을 목표로 한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 꿈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네 아이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p.3, 작가의 말)
꿈을 이루는 과정, 그 길을 '기나긴 터널'로 비유한 것이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작가가 말하는 '터널'은 그저 바깥의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봐주지 않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누군가 그 속의 빛을 봐줘야 끝나는 터널처럼.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상자이다. 열기 전엔 어떤 내용일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자 속엔 물건이 가득 들어있듯, 좋은 책엔 좋은 경험, 교훈, 지식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저드 베이커리 / 저자 구병모

청소년의 도피

3-2 유환서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는 환상적이고 꿈같은 상상이 되는 제목과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마법적인 이야기와 대조되듯이, 이 소설은 인간의 심리와 관계를 깊이 파고든다. 현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잔혹한 현실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맞닥뜨린 주인공은 굳건한 의지와 마음으로 상황을 타파해 나간다.

주인공의 안타까운 현실

작중 초반에는 주인공의 잔혹한 현실을 먼저 보여준다. 주인공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자신이 운명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에 걸맞게 마법과도 같은 기적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러한 내용은 자신의 선택이 억압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 노력의 결과를 쟁취했던 것처럼, 자신을 믿고 달려 나가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작가의 의도가 완고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 같은 청소년의 잔혹한 현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의 실업률과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주인공의 삶과 비교된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하여 자신을 구원하고 상황을 타파했던 것처럼, 청소년들도 자신을 믿고 달려 나가면 주인공처럼 행복했던 삶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설은 마법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심리적 갈등 상황과 상처를 노력해서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교훈이 청소년의 잔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법의 은유적 표현

보통 마법이라 하면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거나, 청소년의 도피로 사용되는 일방적인 소재라고 다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소설에서 '마법'이란 표

현은 사람들의 갈등과 분노, 또는 상처 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감정의 발현이나 사랑을 유발하고, 정을 나누고 쌓는 일말의 감정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마법은 단순히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의 삶에서도 여러 선택이나 노력을 통해 마법 같은 감정을 그려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선택과 노력이 있다면, 마법 같은 결말을 충분히 우리 삶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이 소설은 환상 같은 제목과 표지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의 심리와 관계를 진지하게 파고드는 마치 철학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어떨 때는 청소년의 잔혹한 현실을 나타내고, 어떨 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건네주기도 한다. 나는 이 소설을 고된 삶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말투이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별로 필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말의 여유가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열여덟 너의 존재감 / 저자 박수현

솔직한 표현

3-2 윤예나

박수현 작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쓰고 번역하는 작가이다. 중앙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고향 구례를 사랑하고, 그곳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수현의 대표작인 『열여덟 너의 존재감』은 세 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시점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청소년들의 고민과 성장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책의 구성과 주제

『열여덟 너의 존재감』은 1부에서 3부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마다 주인공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내 마음은 어떠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를 통해 인물들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자아 탐색과 감정 변화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같은 주제의 작품으로는 아이유의 「팔레트」와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가 있다. 아이유의 「팔레트」는 성장 속에서 변하는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이며,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는 청춘의 고민과 성장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시리즈이다.

이 책의 중요한 순간

강이지가 이순정에게 "이순정, 요즘 너는 어떠니?"라고 묻는 부분이 이 책의 명대사인 것 같다. 흔히 우리는 '힘내'라는 말을 쉽게 건네지만, 때로는 그보다 진심 어린 질문 한 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순정이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해 설득하는 장면이 명장면이었던 것 같다. 부당함을 느껴도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고 난 후 배운 점

일상에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인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작은 일이라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책의 인물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함도 알 수 있었다.

『열여덟 너의 존재감』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자아 찾기와 성장 과정을 진지하게 다루며, 독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기 수용만으로 모든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여러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렬하며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4.5점을 주고 싶다. 이야기 도중 전개가 뻔해 다소 평범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존재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혹시라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꼭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이순정, 요즘 너는 어떠니....." (p.98)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궁전이다. 왜냐하면 궁전처럼 책은 항상 신비롭고 새롭다. 또 종류가 매우 많아 볼 것이 많다. 궁전은 매우 화려한 것이 가득하다. 아름답고 탐나는 것들이. 하지만 또 너무 넓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것 별개로 가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매일매일을 보고 하는 것들이다 보니 그렇게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책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삶에서 아름다운 가치에 해당하는 재미, 지식, 안정을 준다.



나도 낙타가 있다 / 저자 문정옥

낙타와 오아시스의 의미

3-2 이준서

『나도 낙타가 있다』는 문정옥이라는 소설가가 쓴 장편 소설이다. 많은 사람은 이 책을 보고 궁금해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왜 '나도 낙타가 있다'인지. 이 책의 제목이 지어진 이유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수리라는 인물이 낙타라는 동물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아 주제를 해결해 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처음과 끝, 그사이의 변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겉표지가 조화로웠다. 큰 낙타 옆에 작은 소녀가 헤엄을 치고 있고 배경인 사막과는 다르게, 상반되는 푸른빛 하늘과 나무를 그려 그림이 굉장히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였다.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의 내용이 평화롭고 잔잔할 것 같았지만, 책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인 수리가 공부하라는 엄마의 압박에서 벗어나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방황하다 동물원에 가서 낙타를 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작가는 낙타가 무더운 더위 끝에 오아시스를 찾는 것을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서 수리를 낙타로, 엄마를 무더위로, 동물원을 오아시스로 비유한 점이 청소년기 주인공이 방황하는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물 냄새를 맡는 한 너는 낙타야"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낙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발달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동물원에 갇힌 낙타는 그저 방문객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기 등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놀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장면을 본 수리가 동물원에 갇혀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는 낙타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껴 낙타를 위로해 준다. 물 냄새를 맡기 위해 노력하는 낙타를 보고 자신도 꿈과 목표를 생각하고 수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던 계기가 되어서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

수리처럼 고통받는 학생들

책에서 수리는 엄마의 공부 압박과 강요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말에만 따르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빈혈, 불안장애와 같은 증상들에 시달리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조사해 본 결과, 최근 10대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56%나 증가하였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극단적인 입시 경쟁과 성적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다. 이 책에서도 수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소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작가의 마음, 응원이 담긴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작가는 이 책을 자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는 학생들을 위해 쓴 것 같다. 글에서 주인공인 수리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걱정하는 대사나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 주위 친구들과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어", "넌 꼭 꿈을 이룰 거야"와 같이 응원이 되는 말들을 해준다. 작가는 자신이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등장인물들로 대신하여 독자들에게 응원의 말들을 건넨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꿈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항상 수동적으로 살던 주인공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점점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 평소 습관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평소에 남이 하라는 대로만 살고 의욕 없는 모습들을 자주 보인 것 같아서, 나 또한 남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정한 나만의 기준대로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친구와의 갈등이나 부모님 사이의 갈등들도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대부분의 청소년기 학생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겪을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님들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난 사람들 틈에 살면서 늘 사막을 꿈꾸곤 했어. 오아시스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p.132)



다이어트 학교 / 저자 김혜정

숫자가 아닌 마음

3-3 김예림

'정말 살을 빼는 것이 행복으로 돌아올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처음 봤을 때 학교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 아니면 독특한 설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대감도 생겼다. 표지를 보면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다는 예상이 들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다이어트 학교에 입학하는 홍희가 살을 빼려 하지만 학교의 엄격한 일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형성되고 유머, 긴장, 감동으로 이어지는 감정 곡선이 나타난다.

용기의 순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 등장인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고 싶다. 나의 명장면은 홍희와 친구들이 탈출하는 장면이다. 사회적 억압과 외모 강박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상징적인 순간이라 느꼈고 친구끼리 서로 격려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 멋있었기 때문이다. 명대사는 "나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라는 문장을 골랐다. 이 대사는 홍희의 개인적 성장과 책의 주제를 잘 담고 있고 탈출이라는 행동과 자존감 회복이라는 내면의 변화를 동시에 표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도 이 대사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한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맘먹었던 적이 있다. 작년 겨울방학에 살이 너무 찐 탓에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도 부모님이 좀 먹으라고 해도 많이 먹지 않았던 과거의 내가 생각났다. 그땐 나도 다이어트가 나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생각이 바뀌어 이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외모 강박의 그림자

나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돼지라는 구호를 강요받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원장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학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에 홍희가 주뚱이라는 놀림 때문에 다이어트 학교에 가는 모습이 가볍고 재밌게 다가왔는데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가슴이 먹

먹해졌다. 완강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고, 친구들과 함께 자유를 찾는 모습에 뭉클해졌다. 이 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단 걸 깨닫게 됐다.

현실의 거울

내가 책을 읽으면서 관련된 세상일을 찾아보았는데 진짜 다이어트를 강요한 학교가 있었다.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과체중 학생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적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현재 2025년에도 소셜미디어가 "완벽한 몸매"를 강요한다고 한다.

나는 책을 읽고 '내가 저 학교에 갔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희가 친구들과 탈출하고 신고한 모습을 보고 나도 억압적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을 또래 청소년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책을 읽으면서 외모 강박과 자존감이라는 주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다. 한 번씩은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생각의 근육이다. 왜냐하면 많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순례 주택 / 저자 유은실

어른이라는 말 앞에서 멈칫

3-7 이가영

누구든 태어나면 어른이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것일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사회는 성인이 많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도 스스로 노력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들을 캥거루족이라 부른다. 과연 캥거루족은 어른일까? 아니면 몸만 성인이고 어른이 아닐까? 『순례 주택』 속 주인공 수림은 나와 같은 중학교 3학년이다. 하지만 친부모한테서 크지 않고, 외할아버지와 순례 씨한테서 컸다. 현재 수림이는 친부모와 함께 산다. 그녀는 그들을 1군들이라고 부른다. 1군들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다. 왜일까? 한번 이 작품을 읽어 나가 보자.

수림아, 어른이란 말이야.

이 책에서 명장면 2개를 뽑자면 첫 번째로 순례 씨가 수림에게 줄자를 건네며 어른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를 선택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어른은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장면이 책을 관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두 번째 장면은 1군들과 수림이가 정식으로 순례 주택에 이사 왔을 때이다. 1군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돈 등으로 살고 있었으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돈이 없어 순례 씨의 배려로 순례 주택에 오게 되었다. 이 장면이 1군들에게는 좋은 아파트란 새장이 사라지고 난 후의 현실을 그려내고, 수림이에게는 새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더욱이 인상 깊었다.

어리지만 어른일까?

책에는 '어른'이란 단어와 뜻이 많이 언급된다. 그 안에서 1군들은 어른이 아니고, 수림이는 진정한 어른이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과연 수림이는 어른이 맞을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살려고 애쓰니 어른이 맞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아직 어린이다. 하지만 살려고 어른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과연 어른일까? 아니다. 수림이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라면?

수림이는 1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순례 씨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들은 1군들을 수용해 주고 포용해 주었다.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주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달라졌다. 기회를 준다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서평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과연 수림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오늘날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해 볼 질문이다. 당신의 세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확고해질 것이다.

작품 초반 1군들은 어른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1군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많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이 어른에 관한 책인지, 1군과 같은 모습을 가진 이들을 비평하는 책인지 긴가민가하였다. 이 작품은 읽을 때마다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작품이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아도 색다를 것이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해 드린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순례 씨는 '감사'라는 말을 잘한다. 순례 씨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가 떠올랐다. 나도 순례자가 되고 싶다. 순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관광객은 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pp. 99~100)



사랑과 믿음의 한계

구의 증명 / 저자 최진영

3-10 김지효

당신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가? 믿음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믿음을 그저 종교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달랐다. 담은 믿음을 최후의 인간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동시에 여지없는 기적인, 구로. 당신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것이 무엇이라도,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성장과 진심.

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다. 첫 번째는 담이 이모가 남긴 MP3를 들으며 칼을 가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에서 담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에게 물려온 불행을 구라는 행운을 기대하며 버텼다. 말하자면, 상쇄시켰다. 책에서 가장 잔잔하고도 외로운 장면이었다. 난 이 장면에서 담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나약하던 한 인간이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담과 함께 나의 사고도 넓어져 가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부분. 구가 담을 바라보며 이제 너의 인생을 살라고, 자신은 이제 놓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구가 죽어서야 진심을 전하는 것이 안타깝고도 인상 깊었다. 이 책에서 제일 여운이 남는 부분이었다.

나의 사랑 가치관을 뒤집은 책.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중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이 생각이다. 사랑에 대한 헌신. 난 사랑의 헌신에 최대치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보통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끝이니까. 하지만 이 책 속 담은 달랐다. 담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지만 담은 살아서 죽음 그 너머의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최대의 헌신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 진심이라면 그 이후에도 해야 할 것이, 더 높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 내 생각의 가장 많은 변화를 받은 부분이다.

나는 이런 게 떠올랐어요.

『구의 증명』을 읽고 난 후 여운에 잠겨있을 때, 머릿속에 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하이-구원자〉라는 노래였다. 이 두 작품이 나는 닮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비슷한 주제를 다룬

두 작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같아 새로웠다. 서로를 갈망하면서, 사랑의 이면엔 절망뿐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으려 싸우는, 피하다가도 진심을 드러내며 서로를 맞이하는 한 문학. 그리고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가식만을 보여주는 한 노래.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울지 생각도 해 보았다.

나는 이 책을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의 성장을 담은 이야기로써 당신에게 위로와 여운, 의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 당신이 이 책을 비로소 이해하고 기억했을 때, 당신 머릿속의 생각을 한 번쯤 뒤흔들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면서 한번은 읽어야 한다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책의 평가다. 주제, 필력, 이야기 그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생기는 부작용도 존재하긴 한다. 책이 심오하여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며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철학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다.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내겐 부활과 동정녀의 잉태가 필요하다. 윤리나 과학이 끼어들 여지없는 기적이 필요하다. 천 년 후가 필요하다. 종말 혹은 영생이 필요하다. 미친 자아가 필요하다. 인간이 아닌 상태라도 좋으니, 당신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p.10)

나에게 책은 OO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책은 인격이다. 왜냐하면 책은 내가 가지지 못했던, 어쩌면 내 선택으로 인해 형성된 현재를 벗어나 다른 세계의 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겪지 못했던 현재,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선 불가능한 세계로도 나를 이끈다. 책의 세계 그리고 주인공에 나를 대입하고 사고를 이어가다 보면 마치 그 세계에서의 내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



완득이 / 저자 김려령

편견을 걷고, 희망을 걸다.

3-11 임수민

이 책의 표지에는 완득이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또, 표지에 쓰여있는 책의 대사를 통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소설책의 표지와 달리,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마냥 웃고 있지 않아 밝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두운 분위기도 함께 암시한다. 이 책을 쓴 김려령 작가는 『내 가슴속에 해마가 산다』 등의 책을 쓰며 여러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완득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독자까지 아우르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생각

'완득이'는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간다. 글쓴이는 이 책을 단순히 재미와 청소년들을 위한 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장애인, 난쟁이, 외국인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사회적 약자에게 향해있는 사실을 비판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찬바람을 이겨낸 새싹처럼

갓난아기 때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드러나는 장면, 즉 킥복싱을 연습하는 완득이를 위해 존댓말로 완득이를 걱정하며 챙겨주는 듯 '반찬 남기지 말고 먹으세요.'라는 쪽지와 도시락을 어머니가 두고 간 장면이 명장면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완득이를 향한 베트남인 어머니의 미안함은 전에 라면을 먹는 장면에서도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보살핌이 처음으로 드러난 장면이며 비록 어색하지만, 완득이를 챙기려는 진심 어린 모습이 감동스러웠기 때문이다.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꽉 찬 하루하루를 꿰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온 완득이가 킥복싱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밀었을 때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장면에서 완득이의 대사이다. 비록 힘들지만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겠다는 완득이의 결심이 드러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방향을 찾은 완득이가 대단한 것 같아 이 대사를 명대사로 뽑고 싶다.

6살의 고충

6살 다솜이네는 5남매이다. 다솜이는 주위에 어울릴 친구도 없고 장애도 있고 왜소해서 막노동도 못 하는 아빠와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다솜이의 아빠는 오토바이 운전직으로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소설에서만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신문으로 실제 접하게 되어 안타까웠다. 이러한 일 때문에 글쓴이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 아닐까 싶다.

이 책을 읽고 가난한 집안의 가장 같은 힘든 상황이라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이 『완득이』를 읽고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다면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 완득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완득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작품이다.

내가 뽑은 책 속 최애 문장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꽉 찬 하루하루를 꿰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p.233)



엮은이의 말

이 문집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 지역중심교로 선정된 우리 상촌중에서 교과 연계 책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학년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책을 읽고 난 후 마주한 생각들을 모아 엮은 서평집입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감상과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작품 속 인물과 상황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서평을 써 주었습니다. 한 줄 한 줄에는 책을 통해 느낀 감정과 배운 점, 그리고 성장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평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일이 아니라, 작품을 해석하고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는 경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그 과정을 성실하게 경험했고, 이를 통해 책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쓴 서평을 읽고 책으로 펴내기 위해 다시 수정하는 동안 또 다른 배움을 발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집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은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이 책을 엮는 저에게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쓴 서평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작은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는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다양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울림을 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학업 속에서도 고민하며 글을 완성하고, 자기만의 책에 대한 의미를 공유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과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책과 가까이 지내며 스스로의 생각을 더 넓혀 가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서평글이 책으로 나오기까지 학생들을 정성껏 지도하시고, 응원의 마음으로 협력해주신 3학년 국어과 세 분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_사서교사 오현미

2025 상촌애서(愛書) '나도 작가' 프로젝트

교육과정 연계 학생 서평 작품집

독서 플레이리스트

지은이 상촌중학교 3학년 학생 33명

엮은이 사서교사 오현미

발행인 상촌중학교

발행일 2025년 12월

2025
책 쓰기 프로젝트
지역중심교
상촌중학교

책마루도서관

